

# 안동 병산·도산서원 '국가 보물' 지정 예고

## 병산서원 만대루

학자 류성룡·류진 모신 누각건물

## 도산서원 도산서당

퇴계이황 말년의 10년 보낸 곳



국가 보물로 병산서원이 지정 예고 했다.(만대루) /안동시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만대루, 도산서원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역사적 인물의 건축 관여, 유교문화의 건축적 표현, 건축이력이 기록물로 남아 있어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병산서원 만대루'는 조선 중기 대표 문신이자 학자인 류성룡과 류진을 모신 병산서원의 누각 건물이다.

유생들이 유식하고 주변 산천의 풍광을 보며 시회를 가졌던 공간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압도적인 규모에 팔작지붕으로 전체가 개방돼 있는 등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갖고 있다.

경사지에 자리한 병산서원의 강학 공간과 제향공간을 외부로부터 막아

주는 방어막 역할은 물론 병산서원 및 은편 강과 절벽이 이루는 승경을 서원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각적 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의 경치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 조정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내는 전통적인 조경수법인 차경(借景)의 예를 잘 살린 누각으로 평가된다.

서원 누각이 가져야 하는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경관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조경 기법을 잘 살렸다.

인공적 조작과 장식을 억제하고, 건축 기본에 충실히 성리학적 건축관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원 누각의 대표작이자 병산서원 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도산서원 도산서당'은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퇴계 이황이 말년의 10년을 보낸 곳이다.

1561년(명종 16) 건립된 이후 절처

한 보존관리 방침과 보수 절차에 의해 관리돼 4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

퇴계의 건축관이 반영된 초기 형태의 서당으로 16세기 건축형식과 독자적인 특성을 잘 드러낸다.

서당건축의 초기적인 형태인 3칸 구성이지만 좌실우당(左室右堂)형의 보기 드문 평면이다.

최소한의 공간에 주간(기둥과 기둥 사이)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퇴칸(집채의 원래 칸살 밖에 붙여 딴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을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해 효용성을 높였다.

퇴계가 건축에 직접 참여해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문헌을 통해 건축 참여인물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서당건축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서당이 보물로 지정된 곳

은 없어 도산서당의 문화재적 가치가 더 높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산서원농운정사'는 도산서당에 인접해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퇴계이황이 직접 설계한 건축물이다.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민도리식(첨자나 익공 등의 공포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출목도 없는 결구법) 맞배지붕으로 '공(工)'자형 평면이다.

일반적으로 공(工)자형 건물은 풍수지리 양택론에서 금기로 여겨왔기 때문에 기존 다른 서원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농운정사의 창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했다.

높이와 크기를 조절해 서로 다르게 구성한 점은 실내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특히 농운정사는 조선의 학문세계나 정치활동에서 큰 활동을 한 영남 선비들이 짊은 시절 퇴계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공부하면서 산실로 이 건물에서 공부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 도산서원에 배향된 퇴계의 제자 조목을 비롯해 영남의 큰 학맥을 이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의 국난을 헤쳐나간 서애 유성룡 등이 이 곳을 거쳐 갔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신안 병풍도 주민, 의료진에 꽃차 선물

신안군은 중도면 병풍도 주민들이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맨드라미 꽃차 100세트를 광주광역시간호사회에 전달 했다.

(전남)신안=안행주 기자 abcd@

## 영양군, 추경 24억 확정

### 3회 추경대비 0.68% 증가

경북 영양군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24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 재정규모는 3534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68% 증가한 3510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20일 원포인트 추경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군은 코로나19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부족한 추경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 및 교육 경비, 올해 주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조치 등으로 확보했다.

주요 내용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17억1500만 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지급사업 24억 80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 6000만 원, 태풍 피해지역 환경정비 7000만 원 등이다. (경북)영양=김태우 기자 ktu3987@

## 선박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부산시, 선제검역 등 나선다

### '포트 스루 플랫폼' 개발 중 최종 선정땐 자금 5억 투입



영암군은 디지털로 만나는 한국의 도자명품 전으로 온라인 VR(가상현실)과 e-book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e-book 서비스를 제공모습

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e-book은 전시된 유물의 세부적인 이미지와 비교 및 참고자료를 수록한 전시도록 디지털 자료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유물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전남)영암=김희선 기자 khs161700@

부산시가 선박을 통한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포트 스루(Port-through)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포트 스루 플랫폼은 선박을 통한 항만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검역과 주민건강 관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최종 과제로 선정되면 오는 2022년까지 5억 1400만 원(국비 4억 1400만 원, 시비 1억 원)을 투입해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부산대병원·부산항만공사·부산항운노조 등이 참여한다.

주민과 지자체, 연구자가 함께 문제기획리빙랩을 구성해 ▲데이터 분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한 선박별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해상에서 적용 가능한 비대면 선별검사 시스템 및 사용법 개발 ▲감염병 현황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염병 위험지역, 개인 맞춤형 예방과 안전관리 안내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과기부-행안부 협업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에 지역현안 수요조사를 제출해 선정됐고 10월에는 부산대의대 김형희 교수가 문제해결 연구자로 선정돼 내년 1월까지 문

제기획 리빙랩을 운영한다. 향후 리빙랩을 통해 주민, 종사자가 중심이 된 스스로 해결단을 운영해 문제해결 기획(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최종 본 과제로 선정되면 2022년 5월까지 기술개발과 기술적용·확산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에서 초기 진압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지난 7월 감천항에서 해외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감염병이 지역으로 확산된 바 있다. 감천항의 경우 국립부산검역소에서 해외유입 선박의 철저한 검역을 위해 승선 검역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면 검역에 대한 위험성과 인력·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박 정박에 앞서 비대면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감염 위험자는 즉시 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시스템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현안에 대해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으로 시와 부산대병원·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좋은 사례"라며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해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여수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AI 면접분석 등 무료 실시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화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확인 후 이력서를 제출하면 기업에서 1차 합격자를 선별해 정해진 날짜에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일자리 매칭 외에도 취업특강, AI 면접 분석, 인적성 검사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기업체 및 구직자들은 여수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역일자리를 연계하고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약 320여 명이 채용됐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 화순군,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30억 투입

### 내년 대기환경 개선시책 적극 추진

화순군이 오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에 3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이 확보한 국·도비 18억원과 군비 12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

설 교체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8억 8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승용·화물·이륜) 구매 지원 사업 등 8억 1600만 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4억 9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7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3억 3000만 원 등이다. (전남)화순=강성대 기자 ksdl008@